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지향 세상을 만드는 참된 지성인적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제1831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3월 18일 (음력 2월 22일) 수요일

강→저수지→논밭 '물가두기 전쟁'

■ 르포 - 봄농사 앞둔 전남 들녘은 지금

수 ㎞ 양수 호스…펌프소리 요란

"한 방울이라도 더" 용수확보 총력

구례군 직원이 17일 광의면 한 하천에서 양수기 4대로 퍼 올린 농업용수를 천은 저수지에 채우고 있다. 군은 지난달 10일부터 하루 평균 200t의 물을 채우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안간힘을기울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봄철 물가두기가 올해 농사의 성 었다.
패를 좌우합니다. 풍년농사를 위해 단 한 방울이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꼭꼭 가둬야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심(農心)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전남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49%에 불과해 영농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각 시·군은 양수기를 동원해 인근 하천의 물을 저수지로 퍼올리는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

17일 오전 구례군 광의면 천은 저수지(총 담수량 177만t)는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다. 저수지 발원지인 천은사 계곡의 물길도 마른 지 오래다.

콘크리트로 된 여수토(餘水吐·물넘이 수로) 바닥엔 지름 15㎝의 파란색 송수호스 한 개가 수로를 따라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1.8㎞ 떨어진 광의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구례군이 설치해 놓은 '생명선'이었다.

이날 현재 천은 저수지 담수량은 34만t으로 전체의 19.2%에 불과했다. 군은 양수기 4대를 이용, 인근 하천과 저수지에서 하루평균 200t의 농업용수를 천은 저수지에 채우고 있다.

지난해 강수량은 평년(1천850㎜)의 40%인 740㎜에 그쳤다. 가뭄이 계속되면 밭 농사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천은 저수지를 이용, 농사를 짓는 농가는 499세대. 면적만도 363ha에 달한다. 이들이 한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업용수는 200만t이다.

구례군 김흥연 지역개발팀장은 "고육지책으로 다른 저수지에서 물을 퍼올리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논농사 철인 다음달 말까지 200mm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주민 모두가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말은 안 해도 주민 모두가 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내 다른 농촌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각 시·군은 대형 우물을 파고 흙벽을 쌓아 저수율을 높이는 한편 배수로를 막아 물을 가두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애를 쓰고 있다. 또 전남도는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가뭄대책비 42억원을 긴급 지원받아 저수지 물 채우기, 배수로 물 가두기 등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저수지는 3천231곳으로 계획 저수량은 63만4천193t이다. 하지만, 지난해 강수량이 평년(1천384㎜)대비 74.1%인 1천26㎜에 불과해 저수량이 31만1천434t에 그치고 있다. 이는 평년대비 60%(51만9천56t) 수준이다.

나주·장성·담양·광주호 등 4대호 저수율도 12만223t으로 계획 저수량인 25만2천600t의 47.6%에 머무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가뭄 해소를 위해선 적어도 50㎜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알림
이미자 傳說
'나의 노래 50년' 콘서트

광주일보사는 반세기 동안 전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초청 콘서트 '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 노래 50년-전설'을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올해로 가수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이미자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공연입니다. 1959년 '열아홉 순정'을 발표한 이후 500여장의 앨범과 2천여곡에 달하는 노래를 발표하며 한국 대중음악사를 장식한 이미자는 신이 내린 목소리와 감성으로 오랜 세월 동안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국민가수입니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이미자는 '섬마을 선생님', '동백아가씨' 등 히트곡과 신곡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경제난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4월 25일(토) 오후 3시, 6시
- 장소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공연마루
- 가격 : R석 77,000원,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인터넷 예매 : 티켓마루, 옥션티켓, 티켓링크
- 예매처 : 광주은행 전 지점, E안경 목포점, 목포 한솔문고
- 문의 : 062) 220-0541, 1588-0766

대한제국 국새 되찾았다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17일 고종황제가 친서에 사용한 현존 유일의 대한제국시대 국새이자 조선왕조의 유일한 국새〈사진〉를 지난해 12월 재미교포로 부터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이 국새는 외함은 분실되고 보통(寶筒)이라 일컫는 내함과 함께 입수됐다. 국새는 전체 높이 4.8cm에 무게는 794g이었다. 손잡이는 거북 모양이며 비단실로 짠 끈이 달렸다. 정사각형 인장면(도장을 찍는 면)에는 '황제어새'(皇帝御璽)라는 글자를 양각(陽刻·돋을새김)했다.

국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은(銀)과 금(金) 비율이 거북형 손잡이는 81 : 18인 반면, 몸체는 57 : 41로 나타나 손잡이와 몸체를 따로 제작해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궁박물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임금님 도장'은 모두 어보(御寶)라 해서, 그 임금이 죽은 뒤에 종묘에 안치하기 위해 제작한 '의례용'일 뿐이며, 왕이 생전에 실제로 사용한 국새는 아니다.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고궁박물관은 이 국새에 대한 국보 지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연합뉴스

北, 개성공단 통행 다시 허용…287명 방북

통일부 "내일 이후도 전면 허용될지는 불확실"

남북간 육로 통행을 반복적으로 제한·차단하고 있는 북한이 17일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

북측은 이날 방북 예정자 중 서류 미비로 허가가 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546명과 귀환 예정자 307명에 대한 출입계획을 허가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날 허가를 받은 546명 중 실제로 방북한 인원은 287명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개성공단 방문길이 지난 13일 다시 막힌 이후 나흘 만에 열림에 따라 원·부자재와 식자재·연료 등의 공급 중단에 시달리던 개성공단 업체들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이게 됐다. 북측은 이와 함께 금강산 지구를 오가는 동해선 통행(출경 4명·입경 8명)에 대한 동의도 오전 10시20분께 통보해옴에 따라 우리 측 인원 4명이 예정대로 방북했다.

그러나 이번 북측의 통행 동의가 17일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8일 이후로도 통행이 전면 허용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한편 전날 정부가 공단 입주기업 측과의 협의 하에 당초 경의선 육로방북을 신청한 인원 700여명 중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547명에 대해서만 북측에 동의 신청을 낸 까닭에 최종 명단에서 누락돼 방북하지 못한 건설업체 등 관계자들이 당국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 합동훈련 개시일인 지난 9일 1차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가 다음날 정상화한 데 이어 13일부터 다시 통행을 중단했다가 16일 귀환 인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남흥건설